

75-64

南北韓 比較

北韓의 國民總生産 推計方法 導出과  
南北韓 經濟成長 推移比較

보 관 용

(관 리 과) 1/3

공인

國 土 統 一 院

長 推 移 比 較  
一 九 七 七  
國 土 統 一 院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韓比較—經濟

# 北韓의 國民總生産 推計方法 導出과 南北韓經濟成長 推移比較

研究執筆責任 崔 周 煥

(略歷) 高麗大 大學院 經濟學科卒

美國「南일리노이」大學院 經濟學科卒

韓國銀行 調査役

現 韓國銀行 特殊研究室 次長

刊行責任 金 明 (調査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 차 례

I. 序 論	3
II. 国民所得의 概念	7
1. 우리 計定上의 概念	7
2. 北傀 計定上의 概念	12
III. 従来의 北韓 GNP 推算	17
1. 北傀 発表 計數의 虛實	17
2. 北傀 発表 資料에 의한 試算	20
3. 「始初所得總和法」에 의한 推計	24
4. 蘇聯 科學院 評價에 基礎한 推算	28
IV. 支出面에서의 北韓 GNP 推計	37
1. 政府 消費 支出	39
가. 豫算 構成의 調整	40
나. 軍事費	43
다. 行政費	43
라. 社會·文化費	44
마. 政府 消費 支出 推移	45
2. 總投資 支出	47
가. 固定 資本 形成	47
나. 在庫 變動	51

3. 政府支出推移	53
4. 民間消費支出	54
5. 對外去來	61
6. GNP 推計結果	66
V. 結 論	69
1. 推計上の 問題点	69
2. 南北韓 GNP 比較	71

## I. 序 論

共産圈에서의 國民計定은 우리의 体系나 概念과는 根本的인 差異가 있다. 게다가 그런 國民計定の 内容조차 一切 發表하지 않고 있다. 다만 1964年까지 그들 나름대로 定義한 「國民所得」成長 指標만을 發表해 왔으나 그나마 65年 以後 中斷하여 오고 있다. 間或 断片的으로 北傀의 經濟計劃目標나 実績에 관한 發表가 나오기도 하지만 具體的인 事實의 羅列이 없이 煽動的인 口號와 基底가 모호한 指數만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이런 与件에서 北韓의 GNP를 正確하게 推定한다는 것은 嚴密하게 말하자면 거의 不可能한 일일는지 모른다. 더우기 北韓의 GNP成長은 北傀의 軍事力增強이나 專制体制強化에 主로 寄与하며 住民의 生活水準 내지 福祉向上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事實도 勘案한다면 그 推定自体가 거의 無意味한 것이 아니냐 하는 懷疑마저 갖게 된다.

妥当性与否를 一旦 덮어 두고 보자면 從來에 3가지 方向에서 北韓의 GNP를 推算하려는 試圖가 행하여졌다.

첫째는 北傀가 公表한 断片的인 資料에 의한 試算, 둘째는 北韓에 관한 多方面에 걸친 情報를 이용하여 北傀의 所謂 「始初所得 總和法」을 따른 分配面에서의 推計, 셋째는 蘇聯科学院誌의 計數에 基礎를 둔 推算 등을 들수 있다.

이들 接近들을 檢討해 보면 그 推定過程이 '接木式'으로 多元

化되어 있다는 점이 共通的인 欠陷이다. 北傀가 發表했거나 蘇聯 科学院誌에 掲載된 數值를 一旦 받아들여 基標年の 計數로 삼고 여기서 出發하여 適當히 推算한 增加率로 그 以後를 接統시켜 나가고 있다. 時系列의 延長에 이용한 增加率은 北傀가 断片的으로 發表하는 前後가 들어맞지 않는 數值를 적당히 下向調整하여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間或 他機關의 試算值를 引用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從來의 接近들은 推計過程이 一元化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問題이거니와 北傀가 對内外宣傳을 目的으로 造作하여 公表한 數值를 一旦 받아들여 推定의 出發點으로 삼고 있다는 데 더 큰 問題點이 있다고 하겠다. 結果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北傀의 政治的底意에 立脚한 虛偽宣傳을 받아들이게 되는 誤謬를 犯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라 이런 基礎를 가진 推算에 계속 接統시켜 延長해 나간다면 北韓의 現實과의 乖離는 점점 擴大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本接近에 있어서는 從來의 接近方式이나 推算結果에서 完全히 떠나서 支出面에서 一元的으로 北韓의 GNP를 推計하려고 試圖하였다. 이 推計에 앞서서 우선 國民所得의 概念을 分明히 하기 위해 우리 計定上의 概念에 대해 定義를 내린 다음 共產圈에서 通用하고 있는 北傀計定上의 概念을 考察하였다.

또 하나 앞세운 것은 從來에 이루어진 北韓GNP推算에 대한 檢討이다.

前記 3 가지 方向에서의 接近들을 그 研究機關名을 밝히지 않고 그 概要를 살펴 보고 또한 評價해 보았다.

支出面에서의 接近에 있어서는 時系列統計가 갖추어져 있고 어느 정도 客觀적인 檢討가 可能な 北傀의 豫算 및 決算資料를 主要로 이용하여 最近 3 個年の GNP를 推計하였다. 이렇게 推計하는 경우에는 北傀概念의 「國民所得」計數를 土台로한 推算에서 直面하게 되는 二重計算이나 所謂 「非生産的」서비스部門의 漏落과 같은 問題는 尙 發生할 餘地가 없게 된다.

支出面에서의 GNP는 民間消費, 政府消費, 固定資本形成, 在庫變動, 對外收支인 經常計定上の 剩餘로 構成되는 支出의 總計가 되는데 各項目은 大略 다음과 같은 要領으로 推計하였다.

政府消費支出 및 固定投資支出은 北傀의 豫決算資料를 이용하여 推計하였다. 豫決算資料를 이용함에 있어서 北傀豫算總額만은 發表된 그대로 받아 들였으나 項目構成比는 客觀性있게 調整하려고 努力하였다.

北傀의 体制나 實情으로 미루어 보아 固定資本形成은 政府部門에서만 이루어지며 民間部門에는 全無한 것으로 假定하였다. 한편 在庫變動은 關聯資料의 欠乏으로 歲出入問의 純差額으로 把握하는 便法을 사용하였다.

民間消費支出은 우선 北韓住民의 1人當 食費를 主要로 婦順者들에 의한 情報資料를 통하여 推算한 다음 이것에 恩給係數(推定)와 人口數를 適用하여 推定하였다. 職種과 職級에 따라 北傀官僚層은

特權生活를 享有하고 있지만은 一般住民들은 劃一的인 配給統制로 單調롭고도 貧弱한 食生活을 하고 있기 때문에 1人當 平均 食費는 비교적 容易하게 推算할 수 있는 一面도 있었다.

對外去來인 經常計定上의 剩餘는 貿易收支差만으로서 把握하였다. 貿易外收支에 관한 資料가 없기 때문에 北傀의 對外去來類型을 勘案하여 貿易外收支는 均衡되어 있는 것으로 想定하였다. 貿易에 관한 資料도 75年까지 밖에는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76年은 過去趨勢 등을 考慮하여 推定하였다.

## II. 國民所得의 概念

### 1. 우리計定上의 概念

國民經濟의 活動이 어떤 一定期間(예컨대 1年間)에 이룩한 純成果分을 集約的으로 나타낸 指標가 國民所得의 概念이다. 이것은 두개의 側面에서 볼수가 있다. 生産이란 面과 所得이란 面으로 考察할 수 있다.

生産이란 點에서 말하자면 그것은 一國에 있어서 一定期間에 生産에 의해 새로 追加된 財貨 및 用役의 價值額의 合計이다. 또한 所得이란 點에서 말하자면 一國의 一定期間內의 生産에 있어서 稼得되는 모든 所得, 즉 賃金, 利潤, 利子, 地代 등의 合計이다.

純成果分이란 意味에서의 生産과 所得은 서로 対応한다. 廣意에서 國民所得이라고 부르는 概念은 이 雙方을 包括的으로 總稱한 것이다.

生産이란 側面에서 表現하면 國民所得이란 어떤 一定期間에 새로이 生産되어 그 期間中에 消費나 投資의 形態로 処分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勿論 一國의 經濟活動의 「總」成果는 國內에 存在하는 여러 企業들이 1年間에 生産한 財貨와 用役을 全産業에 걸쳐 累計한 總產出額으로써 求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產出額累計는 年間に 一國內에서 새롭게 產出된 「純」生産額은 아니다.

첫째로 產出高의 累計額중에는 諸企業이 他企業部門에서 購入해서

投下한 原料, 燃料, 動力 등 所謂 中間生産物이 經費로서 당연히 포함되고 있다. 그런데 이 中間生産物은 他企業의 손으로 이미 生産된 것이므로 産出額累計를 취한다는 것은 重複計算이 된다. 여기에서 이러한 二重計算을 回避하고 一定期間에 새롭게 附加된 價值額을 求하자면 이 重複分인 原材料등의 中間生産物의 物的經費를 産出額累計에서 差減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差減한 殘額을 國民總生産 (gross national product), 略하여 GNP라고 부른다.

둘째로 企業은 生産에 있어서 工場이나 機械, 建物과 같은 固定設備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해에 걸쳐 利用되고 있는 이들 固定資本은 그것을 사용함에 따라 해마다 減耗, 磨損된 部分이 生産物의 價值중에 費用의 形態로 移轉되고 있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이미 産出된 固定設備의 이 價值移轉分도 資本消耗費로서 差減할 필요가 있다. GNP에서 이 資本消耗分을 控除한 額을 國民純生産 (net national product), 略하여 NNP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이것이 一國經濟의 그해에 있어서의 生産의 純成果를 나타내는 것이다.

産出額의 累計에서 이들 生産財의 使用額 (케인즈의 使用者費用, 맑스가 말하는 不變資本部分)을 控除하여 純額을 算出한 것은 또한 附加價值라고도 부른다. 附加價值라는 表現을 쓰게 된것은 어떤 産業 또는 企業에 있어서 그만큼이 生産的으로 價值를 높인 部分에 相当한다고 하는 意味에서 온 것이다. 또한 附加價値의 概念에 대해서도 GNP와 NNP의 區別에 対応하여 總附加價值와

純附加價值가 區別된다.

그런데 附加價值에 있어서 「總」( gross )과 「純」( net )의 區別은 資本消耗費用을 包含하느냐의 與否만에 關係된 區別이므로 그 어느쪽도 中間生産物의 重複分을 차감한 純計概念임에는 틀림없다. 이들은 말하자면 生産의 最終段階에 있는 生産物을 나타내므로 中間生産物과 區別하여 最終生産物이라고도 부른다.

말할것도 없이 一國經濟의 純成果를 純粹하게 나타내는 것은 GNP보다는 NNP이다. 다만 實際의 統計에서 資本消耗費用의 推計의 基礎가 되는 企業經理面의 減價償却費는 本來의 意味에서의 資本設備의 減耗를 그대로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資本設備의 使用과 更新에 있어서의 生産力上的 評價와 반드시 一致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理由에서 多少 不明確한 資本消耗分을 除外하지 않은대로의 「總」( gross )概念도 그 나름대로의 意義를 갖는 것으로서 이용된다.

이제 生産活動에 參與한 사람들의 活動의 純貢獻分을 보는데 있어서 아직도 2개의 더 必要한 節次가 남아 있다.

첫째는 오늘날의 經濟活動에서는 政府가 介在하고 있으므로 生産物에 間接稅를 부과하거나 補助金을 支出한다거나 함으로써 生産物의 市場價值는 賦課한 稅金分만큼 높게 되며 補助金額만큼 낮게 된다. 따라서 NNP에서 間接稅를 控除하고 補助金을 加算하는 것이 生産活動에 參加한 사람들( 즉 生産要素 )의 純貢獻分을 求하는데 있어서 必要하다. 이리하여 NNP에서 間接稅( - 補助金 )을 공

제한 것이 狹意로 特定化한 意味에서의 要素費用表示 ( at factor cost ) 의 國民所得 ( national income ), 或은 단지 略하여 國民所得 ( NI ) 이다. NI는 또한 要素費用表示의 純生産이라고도 부르며 間接稅 ( 一補助金 ) 를 差減하지 않은 市場價格表示의 純生産과 區別된다.

둘째는 「國民」과 「國內」라고 하는 概念의 差異다. 오늘날 一國民經濟의 活動은 外國經濟와 關係를 갖고 있으므로 그 사이의 所得의 受給을 어떻게 處理하느냐를 設想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말하는 「國民」이란 常識的인 意味에서의 그것, 즉 特定의 國籍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와는 多少 範圍을 달리한다. 特定國에 비교적 長期에 걸쳐 居住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居住者」라고 하는 사람의 觀點에서 外國과의 境界를 정한다. 이에 대해 「國內」라는 表現은 國家라는 「地理的空間」에 따라 外國과의 境界를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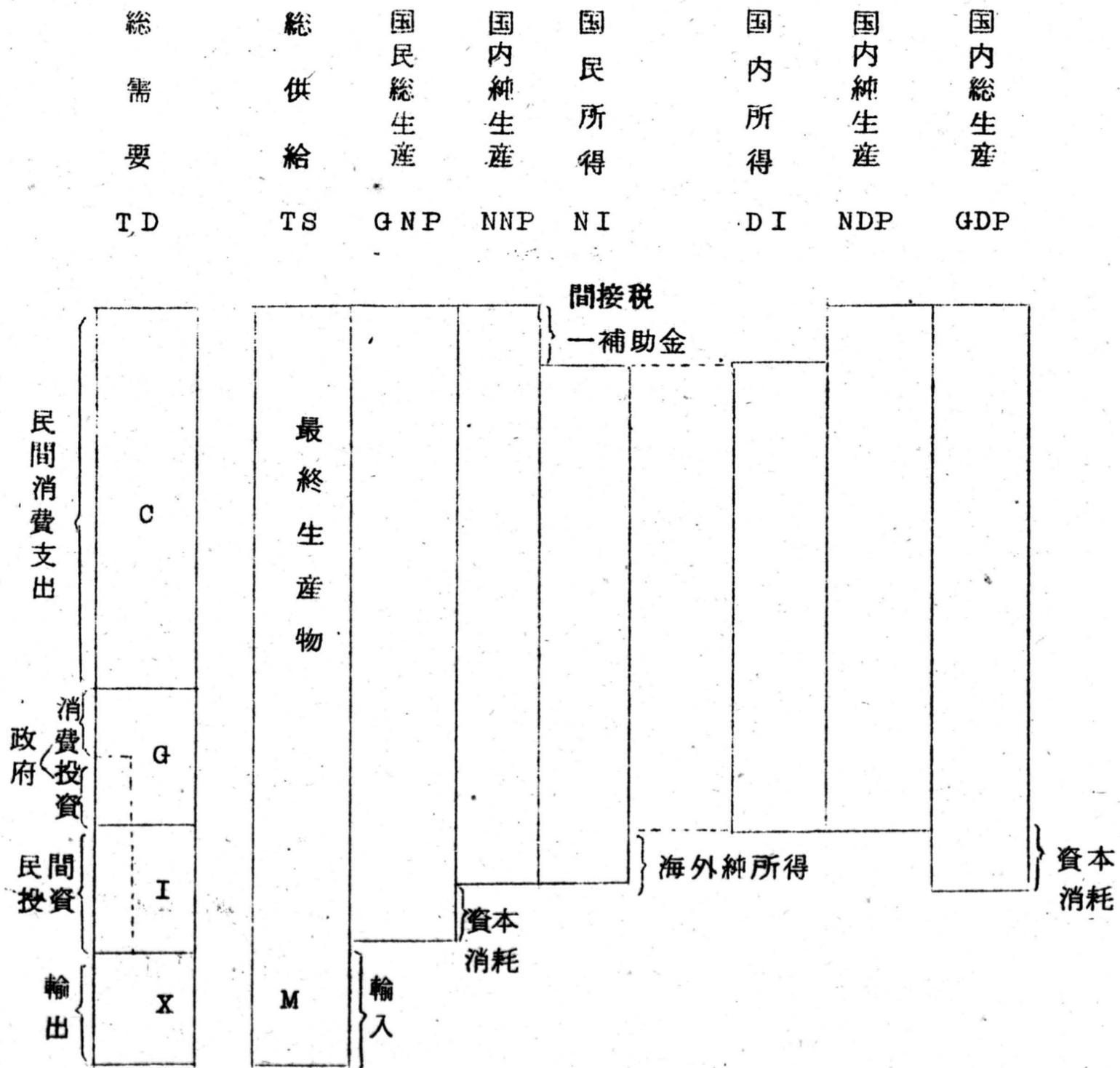
따라서 國民總生産이라고 할 때에는 居住者가 外國으로 부터 受取하는 生産要素에 대한 支給을 포함하며 非居住者의 그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國內總生産 ( gross domestic product : GDP ) 은 GNP에서 外國으로 부터의 要素所得의 受取를 차감하고 外國에 대한 要素所得의 支給을 가산한 額으로서 國內에서 產出된 價值額을 나타낸다.

이 國內總生産에서 資本消耗分을 차감한 것이 國內純生産 ( net domestic product : NDP ) 이며 그위에 間接稅 ( 一補助金 ) 를 差減

한 것이 国内所得 ( domestic income : D I ) 이다.

以上 定義해 온 国民所得의 諸概念에 또한 總供給, 總需要라는 두概念을 追加해 整理하여 그들사이의 相互關係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 圖 1 > 国民所得諸概念의 相互關係



## 2. 北傀計定上の 概念

共產圈内の 國家에서 쓰고 있는 國民所得의 概念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것과는 큰 差異가 있다. 共產圈諸國에서 쓰고 있는 概念은 맑스의 價值論에 基礎하고 있다. 맑스의 價值論에서는 價值는 「生産的勞動」에 의하여 생겨난다는 것이다. 「生産的勞動」이란 物質生産에 投入되는 勞動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物質生産만을 生産活動으로 간주하며 서어비스活動은 生産活動에서 除外하고 있다.

北傀에 있어서도 餘他共產圈内の 諸國에서와 같이 「社会總生産」과 그들 나름대로 定義한 「國民所得」이란 概念만 있을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GNP나 國民所得의 概念은 없다.

「社会總生産」(gross social product : GSP)은 共產社會에서 生産總量을 나타내는 基本的인 概念이다. GSP는 모든 生産單位의 產出量을 累計한 總產出額이므로 한企業所가 他企業所로 부터 구입하여 投入한 原材料, 動力 등의 中間財의 費用은 公제되지 않고 있다. 但 同一企業所內에서의 物資의 内部流通은 計上되지 않는다. 어쨌든 中間財는 他企業의 產出額에 이미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產出額累計를 취한다는 것은 二重計算이 된다.

GSP는 物質的生産部門의 活動만을 包括한다. 物質的生産部門은 工業, 農業, 建設, 運輸 및 通信을 포함한다. 여기서 '工業'이란 共產國家에서 통용되고 있는 廣義의 概念으로서 製造業은 물론 鑛業까지 包括한다. 이들 物質的生産部門에서 精神勞動에 종사

하는 事務員들의 서어비스活動만은 生産活動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서어비스部門들에서는 「社会總生産物」이 産出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까닭에 이들 部門을 非生産部門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①商業, ②金融, ③國家管理機關活動, ④教育, 科学 ⑤文化, 芸術, ⑥保健衛生 등이다. 但 商業에서 生産過程의 延長으로서의 活動, 즉 生産品을 最終需要者 또는 中間需要者에게 配達하는 活動은 生産에 包含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러한 「非生産部門」의 重要性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非生産部門의 活動은 직접 物質的 富를 産出하고 있지는 않지만 有用한 活動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 圖 2 > 는 北傀에 있어서의 國民計定の 各側面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生産은 第1部類와 第2部類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前者는 生産財의 生産이며, 後者는 消費財의 生産을 말한다. 生産財에는 資本財를 비롯하여 각종 原材料가 포함되며 消費財에는 個人消費에 돌려지는 財貨와 住宅, 學校, 病院, 劇場등 社会文化 및 保健施設을 포함한다.

社会總生産을 그들은 價値面에서 所謂 「社会를 위한 勞動에 의하여 創造된 價値」 「自己를 위한 勞動에 의하여 創造된 價値」와 「消費된 生産手段의 價値」로써 이루어 진다고 본다.

이와 같은 價値觀은 分配面에 그대로 反映된다. 따라서 社会總生産은 社会所有分, 民間所有分과 資本消耗分으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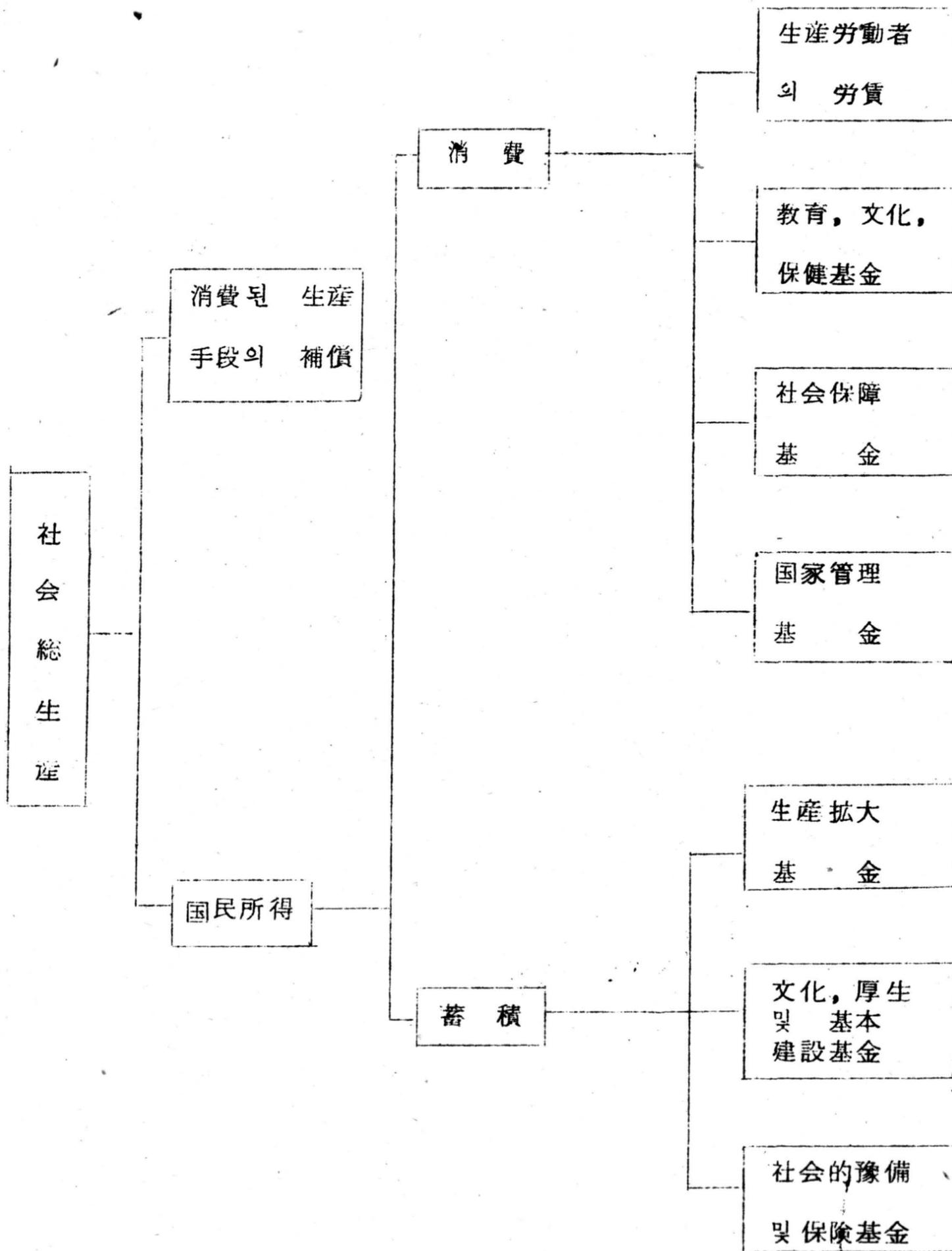
여기서 社会所有分과 民間所有分을 합친 것이 그들이 말하는 바

< 圖 2 >

北傀 国民計定上의 生産과 分配

生産			分配		
社会 總 生産	第一部類 (生産財)	工業 (鎡業包含)	社会所有	資本 消耗	国民 所得
		農業			
		建設			
	第二部類 (消費財)	運輸	消費		
	通信	民間 所有	蓄 積		
	其他				

「国民所得」이 된다. 즉 北傀概念에 의한 国民所得은 二重計算된 社会總生産에서 資本消耗만을 差減한 것이다. 国民所得은 消費와 蓄積(貯蓄에 해당)으로 配分되는데 그 내용은 <圖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北傀概念에 의한 国民所得을 普遍的으로 通用하는 우리  
概念의 国民所得으로 評價하자면 우선 中間生産物の 重複計算에 의  
한 二重計算分을 差減한 殘額에 그들이 除外하고 있는 서어비스生  
産을 加算해 주어야 한다. 게다가 우리의 間接稅에 해당하는 이  
른바 '去來收益金'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北傀概念에 의한 国民所得을 普遍的으로 通用하는 우리  
概念의 国民所得으로 評價하자면 우선 中間生産物の 重複計算에 의  
한 二重計算分을 差減한 殘額에 그들이 除外하고 있는 서어비스生  
産을 加算해 주어야 한다. 게다가 우리의 間接稅에 해당하는 이  
른바 '去來收益金'도 공제하여야 한다.

### Ⅲ. 從來의 北韓 GNP 推算

#### 1. 北傀發表計數의 虛實

앞에서 본바와 같이 北傀概念의 國民所得은 真正한 意味에서 의 國民所得은 아니다. 게다가 北傀는 그런 國民所得의 數値조차 一切 發表하지 않고 있다. 다만 北傀는 1964年까지 「國民所得」 成長指數만을 公表하여 왔으나 그나마 65年부터는 發表를 中斷하였다. 北傀는 7個年計劃을 착수하면서 當初計劃의 最終年度인 1967年의 國民所得을 1960年 對比 2.7倍로 늘린다는 計劃目標을 내세운바 있으나 그 実績에 言及함이 없이 다시 6個年計劃에 있어서는 1976年의 國民所得을 70年 對比 1.8倍로 늘린다고 發表한 바 있다.

한편 北傀는 1人當 國民所得에 대하여도 1957年까지 그 成長指數를 發表하였으나 그後 一切 言及이 없다가 1967年 12月 所謂 最高人民會議에서 金日成이가 『1966年의 1人當 國民所得이 1962年 對比 1.2倍로 늘어난 500원이었다』고 밝히는 한편 『1968年의 1人當 國民所得이 1946年 對比 9倍, 1949年 對比 4.4倍인 580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報告한 바 있다.

그리하여 國內外에서 모두 이 같은 北傀의 斷片的인 發表資料를 根拠로 하여 北韓의 國民所得을 推定하여 왔다. 推定値는 推定機關에 따라 또한 接近方法의 差異에 따라 相當한 隔差를 보이고 있다.

例컨대 海外의 各機關에서 推定한 北韓의 1人当 GNP만 보더라도 1972년에 237 弗이라는 報道( The New York Times, Mark Gayn 平壤探訪記)가 있는가 하면 1970년에 이미 300 弗 내지 320 弗에 달하였다고 보는 見解도 나오고 있다. ( 美国 CIA, 美国 国防總省 軍縮局, 日本 朝日新聞 등 ).

또한 1969년에 280 弗이었다는 推定도 있다. ( 印度 Eastern Economist, IMF 및 IBRD ). 그밖에 소련科学院은 1962年の 北韓의 国民所得을 115 弗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115 弗에 北傀当局이 發表한 成長率, 즉 66년이 62年对比 1.2 倍를 적용시켜 보면 1966年の 1人当 所得은 356 원이 되며 北傀가 발표한 500 원 水準과는 懸隔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海外의 여러機關에서 推算한 北韓의 国民所得水準에 있어서의 相當한 隔差는 共產國家의 国民計定에 대한 評価上の 差異를 비롯하여 人口規模, 成長率, 換率 등의 相異에 主로 基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推算에서 共通적으로 범하고 있는 基本的인 誤謬는 北傀当局의 断片的인 發表나 計劃目標를 그대로 받아들인 위에서 試圖했다는 사실이다.

北傀가 公表하고 있는 모든 計數는 政治的인 底意, 主로 对内外 宣傳을 위하여 虛偽造作되고 있기 때문에 信憑性이 거의 없다. 또한 実績이 当初의 計劃目標에 未達되는 경우에는 前後의 計數를 교묘하게 隱蔽하거나 發表를 中斷하는 手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發表한 統計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은 北韓의 經濟力을

北傀의 意圖와 같이 過大評價하게 되는 큰 誤謬를 범하게 된다.

예컨대 北傀는 그들의 所謂 中央放送을 통하여 北韓의 1人當 國民所得은 1967年에 580원, 이를 美貨로 換算하면 485弗(1弗對 1,196원)이 되고 韓國은 60弗에 不過하다고 宣傳한 적(70年 9月17日)도 있었다. 그런데 이 580원이라는 數値는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金日成이가 最高人民會議에서 『1967年의 1人當 國民所得은 580원이 될 것이다』라고 報告한 內容에 基礎를 두고 있다. 이는 同會議에서 밝힌 1966年의 1人當 國民所得 500원에 比하여 16%의 成長을 이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67年의 人口增加率을 2.7%程度로 보면 經濟成長率은 적어도 18.7%에 달하였다는 結果가 된다.

그러나 67年에 北韓의 工業成長率은 17%, 農業生産의 主軸을 이루는 穀物生産은 16%가 늘어났다고 發表하였다. 農業 및 工業 部門을 除外한 其他部門의 成長率은 工業部門의 成長率을 언제나 훨씬 下廻하고 있기 때문에 1967年의 18.7%라는 成長率은 虛偽로 造作된 것이 分明하다. 이것은 또한 北傀가 發表한 1961~64年의 年平均 成長率이 10% 정도였을 때 工業部門의 成長率이 14.4%였다는 事實로서도 反證되고 있다.

또한 67年의 1人當 國民所得을 485弗이라고 發表하고 있는 것은 北傀通貨의 對美貨換率을 1弗對 1,196원으로 보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當時의 實勢換率은 1弗對 2.57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評價하면 226弗정도가 되지만 이 水

準조차도 韓國의 水準을 意識하여 그들의 優位를 거짓宣傳하기 위해 造作한 것이 分明하다.

以上과 같이 北傀가 發表한 數値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基礎로 삼아 北韓의 GNP를 推算한다면 北傀가 意圖한 虛偽宣傳에 同調하는 結果가 되고 말 것이다. 나아가 換率에 있어서도 實勢를 反映한 것이 아니라 北傀通貨를 過大評價한 것을 適用함으로써 北韓의 經濟力을 誇張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國內에 있어서는 그동안 다음과 같은 3가지 接近方法에 의해 北韓의 GNP 推計가 試圖되어 왔다. (1) 北傀가 發表한 斷片的인 資料를 根拠로 한 試算 (2) 北傀方式인 「始初所得總和法」에 의한 分配面에서의 接近 (3) 소련科学院誌의 計數를 基礎삼아 延長시키는 방식에 의한 推算이다.

## 2. 北傀發表資料에 의한 試算

### 가. 斷片的發表資料

北傀는 1964년에 이르기까지 「國民所得」의 成長指數를 발표했으며, 7個年計劃의 目標로서 1967년의 「國民所得」이 1960年對比 2.7倍가 될 것이라는 成長目標를 내세운바 있다. 또한 1971년부터 실시한 6個年計劃의 總量目標로서 1976년의 北韓의 「國民所得」이 1970年對比 1.8倍로 증가하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北傀發表에 따르면 当初 7個年計劃에서는 計劃期間中 經

濟成長率을 年平均 15.2%로 잡은 셈이다. 그러나 1961 ~ 64年의 実績發表는 当初의 目標를 훨씬 下廻한 9.9%에 그쳤다. 그後 7個年計劃이 3年間 延長됨에 따라 計劃成長率은 年平均 10.4%로 下向調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6個年計劃에서는 同增加率을 평균 10.3%로 책정하였다.

한편 北傀는 1966年の 1人當 「國民所得」이 1962年の 1.2倍가 되며 金額으로는 北傀貨로 500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1967年에는 580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展望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朝鮮中央年鑑」(66 ~ 67年版)에서는 66年の 1人當 「所得」을 510원으로 발표하였다.

#### 나. 試算方法

北傀가 발표한 66年の 1人當 「所得」 500원을 基準으로 하여 62年の 1人當 「所得」을 算出하고 推定된 人口를 適用하여 62年 및 66年の 「國民所得」을 算出하고 있다. 1962年の 「國民所得」을 基準으로 삼아 그들이 발표한 「國民所得」成長指數를 適用하여 1949 ~ 64年の 年度別 「國民所得」을 推定하였다.

65年 및 66年の 「國民所得」成長率은 다같이 8.2%로 보았다. 1967 ~ 70年에는 그 成長率에 관한 발표가 全無하며 다만 67年에 限하여 1人當 「國民所得」이 1949年對比 4.4倍로 늘어난 580원에 달하였다는 北傀放送에 의한 발표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반대로 1949年對比 1967年 1人當 「所得」의 成長指數에

따라 推定한 49年의 1人当 「所得」을 基準으로 하여 67年 1人当 「所得」을 求하고 이를 同年 總人口에 適用, 国民所得의 總量을 推定한 것이다.

다음으로 1968~70年의 「国民所得」規模는 다음의 5가지 代替的인 假定으로 推算하였다. ① 1961~67年의 成長率中에서 極端值(61年의 19%와 67年의 5.8%)를 제외한 나머지 5個年의 單純平均成長率 7.5% ② 61~67年의 單純平均成長率 8.9% ③ 北傀가 발표한 61~64年의 單純平均成長率 9.9% ④ 61~67年의 推定된 GNP의 複利 年平均成長率 10.8% ⑤ 北傀에서 論争이 일어졌던 것으로 추측되는 4~5% 내지 6~7% 成長理論에 의거한 6%의 年平均 成長率을 적용하여 1968~70年의 年度別 GNP를 推算하였다.

#### 다. 試算結果

北傀의 發表資料에 의거하여 試算한 北韓의 GNP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假定의 差異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다. 1970年의 GNP를 보면 最大 39億弗(推定 V), 最少 31億弗(推定 III)의 規模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推定 V의 結果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67年의 1人当 所得을 北傀發表를 그대로 받아들여 580원으로 본 것과 1967~70年의 年平均 經濟成長率을 12.8%로 본 假定에 立脚했기 때문이다. 그 反面에 推定 III에 의한 規模가 가장 작은 것은 67年의 1人当 所得水準을 北傀發表와 같은 580원으로 보지

<表1>

北韓の GNP 試算

		推定 I	推定 II	推定 III	推定 IV	推定 V	推定 VI
1960	GNP (百萬圓)	3,680	3,680	3,680	3,680	3,680	3,759
	" (百萬弗)	1,432	1,432	1,432	1,432	1,432	1,463
	1人当所得 (圓)	348	348	348	348	348	356
	" (弗)	135.4	135.4	135.4	135.4	135.4	138.5
1966	GNP (百萬圓)	6,292	6,292	6,292	6,292	6,292	6,418
	" (百萬弗)	2,448	2,448	2,448	2,448	2,448	2,497
	1人当所得 (圓)	500	500	500	500	500	510
	" (弗)	194.6	194.6	194.6	194.6	194.6	198.4
1970	GNP (百萬圓)	8,596	8,269	7,927	9,186	10,196	9,360
	" (百萬弗)	3,345	3,217	3,085	3,574	3,967	3,642
	1人当所得 (圓)	614	590	566	656	728	668
	" (弗)	238.9	229.6	220.2	2,553	283.3	259.9
61~70	經濟成長率 (%)	8.9	8.4	8.0	9.6	10.7	9.6
(年平均)	1人当所得成長率 (%)	5.8	5.4	5.0	6.5	7.7	6.5

않고 49年對比 4.4倍 증가했다는 倍數를 적용하여 算出한 것과 1968~70年의 年平均 成長率을 6%로 낮게 잡은데 基因하고 있다.

### 3. 「始初所得總和法」에 의한 推計

北傀가 발표한 不規則的이고도 斷片的인 資料에 의거하여 北韓의 GNP를 推算하는 경우 結果的으로 北傀의 政治的底意와 宣傳을 받아 들이게 되는 誤謬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北傀가 發表한 經濟, 社會, 文化, 軍事, 政治 등 여러 分野에 걸친 廣範圍한 資料를 綜合檢討하여 이것들을 이용하여 北傀가 채택하고 있는 「始初所得總和法」에 따라 北韓의 GNP를 推計한 것이 있다.

北傀의 「國民所得」推計에 있어서는 生産面과 分配面에서의 두가지 接近이 있다. 分配面에서의 接近은 다시 「始初所得總和法」, 「最終所得總和法」과 「蓄積 및 消費의 總和法」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始初所得總和法」에 의해 우선 北傀概念의 「國民所得」을 일단 推算하고 나서 여기에 北傀가 除外한 서비스部門의 純生産도 加算하여 北韓의 GNP를 推定한 것이다.

#### 가. 「始初所得」의 集計

「始初所得總和法」이란 物的 生産過程에서 창조된 所得을 그 1次分配過程에서 포착하는 方法이다. 「始初所得」은 「生産部門」의 勞動者, 事務員의 賃金, 協同農場員의 勞力日數에 따른 收入,

財政部門에 帰屬되는 所得, 社会化 및 協同화된 企業 내지 協同團體, 經濟機關, 企業소의 純所得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構成上의 推計는 불가능하므로 이 推計에 있어서 는 便宜上 이를 家計部門과 財政部門으로 大別해서 試圖하고 있다.

### (1) 家計部門

「工業部門( 鈹業포함) 勞務者 및 事務員의 賃金과 北傀 当局의 直營農場 및 牧場從事者의 勞賃, 協同農場員의 收入, 其他 「生産的」서어비스部門( 建設, 運輸, 通信) 從事者의 賃金を 包括한다.

### (2) 財政部門

去來收益金, 協同團體所得稅 및 個人所得稅와 社会化 내지 協同화된 企業協同團體 및 經濟機關, 企業소의 純所得중에서 財政部門에 吸收되는 企業利益金, 協同團體 및 企業소의 剩餘利益金回收金 ( 減價償却金 및 一定額의 流動資金을 초과하는 「蓄積」) 을 包括한다. 그밖에 北傀当局의 財産收入이나 罰課金 등도 包含되어 있다.

### (3) 海外部門

海外로 부터의 純要素所得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財貨의 輸出入差額을 그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国内所得에 追加하고 있다.

### 나. 推計結果

北傀概念의 「始初所得總和法」에 의하여 推計한 北韓의 GNP는 北傀通貨로 1960 年에 29 億원, 66 年에 51 億원, 70 年에는 72 億원으로 나타났다. 年平均 成長率은 1961 ~ 66 年에 9.7%,

1967 ~ 70 年에는 9%로 60年代 前半이 약간 높은 率로 推計되었다.

部門別로 보면 家計部門보다 財政部門의 所得伸張率이 越等하게 높았다. 이것은 7 個年計劃期間中 財政部門에 대한 分配率을 높이는 反面 勞動所得의 分配率上昇을 政策的으로 抑制한데 基因한 것 같다. 家計部門에 있어서는 工業部門의 勞動所得에 비해 農業部門의 所得은 그 伸張率에서 뒤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北傀概念의 GNP의 部門別 構成比를 보면 財政部門은 61 年の 49.2%에서 69 年の 59.4%로 크게 上昇한 反面에 家計部門은 61 年の 51.5%에서 69 年の 43.9%로 下落하고 있다.

<表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68 年부터 海外部門의 比重이 갑자기 높아지고 있는 것이 注目된다.

한편 推計된 GNP에 의거하여 1 人當 所得水準을 산출한 것을 보면 1960 年에는 北傀貨로 279 元, 美貨로 108 弗정도 였으나 1970 年에는 516 元 (201 弗)으로 늘어나고 있다.

#### 다. 評價와 問題點

北傀의 多方面에 걸친 資料를 이용하여 北傀方式으로 推計한 北韓의 GNP를 北傀發表의 斷片的資料에 의거하여 推定한 것과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로 GNP規模에 있어서는 대체로 줄어 들고 있으나 그 成長率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北傀發表로는 1961 ~ 66 年에 年

< 表 2 >

北 韓 的 GNP

단위 : 北傀貨萬圓

年 度	北傀概念의 「國民所得」		個 人 部 門				財 政 部 門	海 外 部 門
	成 長 指 數	成 長 率 (%)	工 業	農 業	其 他	計		
1960	100	.	33,910	95,056	14,356	143,322	153,940	- 3,204
1961	115	15.1	36,729	122,395	15,194	174,318	166,669	- 2,295
1962	124	7.6	40,486	128,392	16,073	184,951	178,990	627
1963	137	10.2	44,045	134,683	17,627	196,355	208,777	1,560
1964	145	6.2	44,561	141,283	19,860	205,704	219,620	1,354
1965	166	14.9	55,893	148,206	24,999	229,098	264,464	- 2,760
1966	174	4.4	58,950	155,468	25,050	239,468	271,691	355
1967	194	11.8	71,904	163,086	29,241	264,021	303,891	3,023
1968	216	11.4	75,813	171,077	30,710	276,600	371,754	- 12,352
1969	225	4.0	79,845	179,460	31,640	290,945	393,608	- 21,913
1970	246	9.1	111,384	188,253	40,950	340,587	395,331	- 12,751

平均 9.4%의 成長을 이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推計에서는 9.7%의 成長率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北傀가 現實을 過少評價하여 公表하는 경우는 想像조차 할 수 없는 일이므로 北傀発表보다도 더 높은 成長率推計에는 納得이 갈수가 없다.

둘째로 限界資本係數를 算出하여 보아도 1961 ~ 66년에 1.5 정도이며 1967 ~ 70년은 3.1 정도로 나오고 있다. 이것으로서도 60年代前半의 GNP推計가 過大하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같이 過大하게 算出되었던 것은 推計過程에서 주로 北傀가 発表한 資料를 土臺로 삼았던데 基因한다. 즉 北傀가 発表한 就業者數나 그 構成 또는 宣傳을 目的으로 하여 公表한 賃金水準이 過大하게 造作되어 있다는데 그 原因이 있다고 보겠다. 反面에 60年代後半은 北傀発表가 中斷됨으로써 基礎資料를 推定하여 그것을 GNP推算의 土臺로 삼았으므로 그 前半과는 对照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4. 蘇聯科学院評價에 基礎한 推算

##### 가. 蘇聯科学院誌의 計數

蘇聯科学院이 발간한 '現代코리아'誌(1971)에 의하면 北韓의 「國民所得」은 57年 4月1日 北傀貨基準으로 1956년에 9億7千萬원, 1960년에는 25億1千萬원, 1964년에는 40億800萬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을 期間別로 보면 1957 ~ 60년에는

<表3>

北韓의 「国民所得」과 成長率

단위 : 北傀貨萬圓

区分 年度	1957年 不变價格 (对比價格) 1)				1962年 價格 2)	
	「国民所得」	成長指数	对前年比 增加率(%)	期 間 別 成 長 率 (%)	成 長 指 数	期 間 別 成 長 率 (%)
1953	46,500	100	.	27.8	100	30.1
1956	97,000	209	.			
1960	251,000	540	.	26.8	470	20.9
1961	299,000	648	19.1			
1962	331,500	713	10.9	12.4	598	9.9
1963	364,600	784	10.0			
1964	400,800	852	9.9		689	

註：1) 蘇聯科学院刊, 「現代코리아」 1971.

2) 北傀의 發表

年平均 26.8%, 1961 ~ 64년에는 12.4% 成長한 것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成長率은 北傀가 발표한 成長指數에 따른 同一期間의 各各 20.9%, 9.9%를 모두 上廻하고 있다. 兩者間에 顯著的한 差異가 나타난 것은 主로 基準時点を 달리하고 있는데 基因한 것으로 보인다.

#### 나. 北韓의 GNP 推定

蘇聯科學院誌에 나타난 北韓의 「國民所得」을 1962年價格으로 換算, 이것에 工業生産增加率, 限界資本係數, 財政投入增加率 등을 勘案하여 1960 ~ 70年の 北韓 GNP를 推定하였다. 北傀가 발표한 各種 經濟指標중에서 一貫해서 時系列을 가진 것은 工業生産增加率과 基本建設投資增加率, 그리고 財政收入增加率이다.

그중 工業生産增加率로 「國民所得」成長率을 우선 算出하고 나서 그것을 適用하여 1960 ~ 70年の 「國民所得」을 推定하고 있는데 그 結果 <表 5> 및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蘇聯科學院誌에 의하면 60年代에 北韓의 「國民所得」成長은 그 75 ~ 85%가 工業成長에 左右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工業部門의 「國民所得」成長에 대한 寄与率을 75 ~ 85%로 보고 年次別 「國民所得」成長率을 算出하였다. 이렇게 算出된 「國民所得」成長率을 적용하여 1960 ~ 70年の 「國民所得」을 推定하는데 있어서는 北傀資料와 蘇聯科學院誌에 의한 두가지方向에서 시도하고 있다. 推定結果를 보면 北傀資料에 의한 推定額이 蘇聯科

<表4>

단위 : %

区分 年度	工業生産増加率		農業生産増加率			投資 增加率	財政 收入	「国民所得」 成長率 <sup>1)</sup>	
	北傀発表	蘇聯科学院	農業總生産	穀物生産	米穀生産			(I)	(II)
1960	44.0		•	•	•	•	17.7	•	•
1961	14.3	14.1	2.0	27.0	25.0	4.1	18.8	18.59	19.0
1962	18.5(20.0)	19.9	2.0	3.5	3.3	-6.8	16.9	6.72	6.7
1963	8.0	7.6	15.4	4.2	18.8	12.7	8.6	6.79	7.1
1964	17.0	7.4	•	•	•	9.7	11.3	7.35	7.3
1965	14.0	14.0	•	△13.1	•	24.8	2.1	•	•
1966	6.2	6.2	•	•	•	9.1	2.7	•	•
1967	17.0	17.1	•	1.7(7.7)	•	21.1	11.9	•	•
1968	15.0	15.0	•	11.0	13.0	45.0	22.3	•	•
1969	-2.3(-9.7)	-2.3(-9.7)	•	•	•	11.0	5.9	•	•
1970	31.0	31.0	•	•	•	8.2	0.4	•	•

註: 1) (I)은 各年度 基準成果率을 調整한 것이며 (II)는 1960年 基準成長指數에 서 算出.

<表 5> 工業部門成長寄与度外 「国民所得」成長率의 推定

단위 : %

区分 年度	「国民所得」中 工業部門 比重	所得成長率中 工業 部門 寄与分		推定된 經濟成長率 1)		
		北傀發表 (A)	소련의 評價 (B)	(A)		(B)
				0.75	0.85	0.75
1960	44.2	18.4		24.5	21.6	
1961	46.7	6.3	6.2	8.4	7.4	8.3
1962	49.3	8.6(9.3)	9.3	11.5(12.4)	10.1(10.9)	12.4
1963	52.1	3.9	3.7	5.2	4.6	4.9
1964	55.0	8.9	3.9	11.9	10.5	5.2
1965	56.9	7.7	7.7	10.3	9.1	10.3
1966	58.8	3.5	3.5	4.7	4.1	4.7
1967	60.8	10.0	10.1	13.3	11.8	13.5
1968	62.9	9.1	9.1	12.1	10.7	12.1
1969	65.0	-1.4(-6.1)	-1.4(-6.1)	.	.	.
1970	67.2	20.2	20.2	26.9	23.8	26.9

註: 1) 工業部門의 成長寄与率을 75% 내지 85%로 보고 算出한 国民所得成長率

<表6>

北韓의 「國民所得」  
(1962年 價格)

단위: 北傀貨萬圓

區分 年度	推 定 (I) <sup>1)</sup>		推 定 (II) <sup>2)</sup>		期 間 別 年 平 均 成 長 率 (%)		
	金 額	成 長 率 (%)	金 額	成 長 率 (%)	期 間 別	推 定 (I)	推 定 (II)
1960	285,889	(7.4)	285,889	(7.4)	61 ~ 64	9.22	7.66
1961	309,904	8.4	309,618	8.3	65 ~ 67	8.29	8.32
1962	345,543	11.5	348,011	12.4	68 ~ 70	7.19	7.19
1963	363,511	5.2	365,064	4.9	.	.	.
1964	406,769	11.9	384,047	5.2	61 ~ 67	8.82	7.94
1965	443,785	9.1	418,995	9.1	61 ~ 70	8.33	7.71
1966	461,980	4.1	436,174	4.1	.	.	.
1967	516,499	11.8	488,079	11.9	.	.	.
1968	571,759	10.7	540,303	10.7	.	.	.
1969	580,907	1.6	548,948	1.6	.	.	.
1970	636,093	9.5	601,098	9.5	.	.	.

註: 1) 北韓發表資料에 의거함.

2) 소련發表資料에 의거함.

学院誌에 의한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 推算에 대한 檢証

北韓의 基本建設投資額에 의하여 算出한 限界資本係數는 1960 ~ 64년에 平均 2.0이었던 것이 1965 ~ 67년에는 2.6, 1968 ~ 70년에는 4.1로 높아지고 있다.

이것으로써 年次別 「國民所得」成長率을 算出하여 보면 1965년에는 7.6%, 1966년에는 4.1%, 1967년에는 8.3%로 나타난다. 1966년에는 基本建設投資가 매우 低調하여 「國民所得」成長率은 4.1 ~ 4.7% 정도로 推定되었다.

<表7> 北韓의 限界資本係數

期 間	$\frac{I_t}{\Delta Y_t}$			$\frac{I_{t-1}}{\Delta Y_t}$		
	I	II	III	I	II	III
1960 ~ 64	2.01	2.12	2.53	1.79	1.91	2.35
1965 ~ 67	2.64	2.52	2.66	2.29	2.18	2.30
1967 ~ 70	4.12	4.02	4.26	3.55	3.47	3.67

註 I은 北傀發表의 成長実績에 따른 「國民所得」推定에서 산출  
 II는 "의 工業生産增加率에 의한 "  
 III은 소련科学院誌의 工業生産增加率에 의한 "

한편 1968 ~ 70年 年平均成長率은 7.5%로서 工業生産增加率에 의해 산출한 成長率보다 훨씬 낮다. 60年代前半의 成長率은 9.8%로서 그 後半보다 높은데 이 모든 推算結果는 <表 8>에 요약되어 있다.

라. 北韓의 1人当所得

推定된 北傀概念에 의한 「国民所得」을 GNP로 調整한 後 1人当 GNP를 算定한 것을 보면 1960년에 117弗, 1970년에 188弗로 평가하고 있다.

<表 8> 限界資本係數에 의한 推定

단위 : 北傀貨萬원

	「国民所得」	成長率 (%)	
1960	285,889	7.4	9.75
61	337,653	18.6	
62	360,276	6.7	
63	385,856	6.8	
64	414,786	7.4	
65	446,309	7.6	6.64
66	461,608	4.1	
67	503,170	8.3	
68	540,908	7.5	
69	581,476	7.5	
70	625,087	7.5	7.50

北傀貨로는 各各 300 원, 482 원인데 美貨換算率을 1 弗對 2.57 원  
을 適用한 것이다.

弗當 2.57 원이라는 北傀貨時勢는 1966 年에 「일조무역박람회」가  
열렸을 때에 適用한 換算率이다.

## Ⅳ. 支出面에서의 北韓 GNP 推計

民間消費支出, 政府消費支出, 國內總投資支出, 經常計定上の 剩餘를 集計하면 GNP에 대한 支出이 된다. 여기서 國內總投資支出은 固定資本形成과 在庫增加를 합친 總資本形成을 말하며, 經常計定上の 剩餘란 國際收支上の 財貨와 用役의 輸出入差에 要素所得의 受給差를 합친 것이다.

支出面에서 北韓의 GNP를 推計하는데 있어서 主로 依存한 것은 北傀의 豫算 및 決算에 관한 計數이다. 政府消費支出은 말 할것도 없이 全的으로 그 豫決算資料를 이용하여 推計하였다. 國內總資本形成, 즉 總投資도 北韓의 體制나 現實에 비추어 民間 部門에서는 全無한 것으로 보고 北傀의 豫決算資料에 依存하여 政府部門의 固定投資와 在庫增加를 算定하였다. 北傀의 豫算資料를 이용함에 있어서 豫算總額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으나 項目別 構成比는 多少 調整하였다. 調整에 는 過去의 趨勢가 勘案되었다.

北傀豫算上の 「主權機關管理維持費」를 行政費로 「人民經濟費」 중의 「國家建設費」를 固定投資支出로 看做하였다. 豫算收支上の 純差額으로서 在庫增加를 계산하였다.

民間消費支出은 推計上 여러가지 複雜한 問題點을 안고 있다. 北韓의 民間消費體制는 우리社會와는 전혀 다르다. 專制的 共產 治下의 北韓은 國家에 의한 完全 統制 計劃經濟가 실시됨으로써

生産, 分配뿐만 아니라 消費도 政府의 統制下에 놓여있다.

따라서 民間消費支出은 우선 北韓住民들의 生活實態를 正確하게 把握하는데서 출발하였다. 住民들의 生計費支出에서는 北僑豫算上의 「社会文化施策費」로 計上되는 項目인 医療費나 教育費 등에 대한 負擔은 없다. 따라서 이를 除外한 飲食費, 被服費, 住居費, 家具購入費, 燃料 및 照明費, 文化衛生費 등이 支出項目이다.

北韓住民들의 衣食住生活은 매우 單調하기는 하나 勞動者와 農民사이에도 差異가 있을뿐만 아니라 官僚階層에 따라 相當한 隔差가 있다. 官僚의 地位에 따라 糧穀이나 被服의 配給基準에서 顯著한 差等を 두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의 民間消費支出을 嚴密하게 推計하자면 이에 관한 広範하고도 信憑할만한 情報資料가 있어야 한다. 現在로서는 가장 信憑할만한 情報은 帰順者들에 의해 提供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本接近에 있어서는 이런 制限된 情報로서는 上記한 消費支出의 各項目들을 一々히 推算하여 集計하는 경우 큰 誤差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推計方法을 採했다.

全般的으로 糧穀配給基準이 定해져 있으므로 이것을 土臺로 삼아 우선 1人當 飲食費를 算定하였다. 이 食費를 推定을 통해 얻은 係數로써 나눔으로써 1人當 消費支出을 計算하고 이것에 人口數를 곱해주어 전체 民間消費支出을 推定하였다.

對外去來, 즉 國際收支의 經常計定上의 剩餘를 推計하는데 있어서는 北韓의 用役輸出入에 관한 資料가 全無하므로 貿易外收支는

一旦 均衡된 것으로 假定하였다. 貿易收支에 관한 資料는 1975  
년까지 밖에는 이용할수 없었다. 따라서 1976年の 商品輸出入은  
最近의 趨勢를 延長하여 暫定値를 求하여 사용하였다.

### 1. 政府消費支出

우리의 GNP推計에서는 一般政府의 財貨와 用役に 대한 經  
常的 最終支出을 政府消費支出로 계상한다. 따라서 이것은 一般  
政府가 被雇傭人에게 支給하는 給料 및 勞賃을 비롯한 人件費와  
企業과 海外로 부터의 財貨 및 用役に 대한 購入費에서 家計와  
企業에 販売한 것을 差減한 純額으로 나타나게 된다.

北傀豫算에 나타난 歲出項目은 蘇聯을 비롯한 東歐共產圈諸國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즉 ①人民經濟費 ②社会文  
化施策費 ③民族保衛費 (67年부터 國防費로 改称) ④國家(主權)  
機關管理維持費 ⑤豫備費이다.

人民經濟費는 共產圈 特有的 歲出項目으로서 企業의 生産을 위  
한 經常費用과 各部門의 基本建設投資費로 構成되고 있다. 社会  
文化施策費는 住宅 및 學校建設, 教育, 保健, 体育, 社会保障, 學術  
研究, 社会保險, 託兒所經營 등에 所要되는 經費가 포함된다. 國家  
機關管理維持費는 公共行政費에 해당하며 民族保衛費는 軍事費와  
그類似經費를 포괄한 것이다.

이 중에서 公共行政費와 軍事費는 元來 政府部門의 消費支出에  
들어가는 項目들이다. 한편 社会文化施策費중에는 우리의 計定에

서는 民間部門의 消費支出에 해당하는 것이 많이 包含돼 있다. 그러나 異質적인 社会体制에 비추어 여기서는 그대로 政府消費支出에 포함시켰다. 다만 人民經濟費중에서 固定投資支出인 諸基本建設費를 除外한 部分은 經常支出 이기는 하나 最終支出은 아니므로 政府消費支出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生産을 위한 經費」란 原料 및 動力등 中間財에 대한 支出이므로 이것을 包含시키면 二重計算이 되기 때문이다.

#### 가. 豫算構成의 調整

北傀의 豫算資料를 이용함에 있어서 豫算總額만은 一吐 玆을만한 것으로 받아 들였다. 그러나 주어진 豫算規模內에서 項目別構成은 그대로 받아 들일 수는 없었다. 軍事費의 경우가 그것을 端的으로 말해 주고 있다.

北傀는 1966年까지는 軍事費를 所謂 「民族保衛費」라 불렀는데 歲出總額의 3~4%에 不過한 것으로 發表하였다. 그런데 67년에 이르러 「國防費」라고 名稱을 변경함과 同時에 그 構成比를 一躍 31%로 大幅 높였다. 그前까지 人民經濟費나 社会文化施策費 等に 陰蔽하여 왔던 軍事費를 드러내 놓은 것이다.

그後 71年까지 30%를 약간 上廻하는 水準에서 安定되어 있던 軍事費가 72년에 와서 갑자기 그 절반정도로 激減하는 反面에 人民經濟費와 社会文化施策費는 大幅 增加하였다. 이처럼 軍事費의 構成比에서 断層이 생긴 것은 그當時에 南北共同聲明에

< 표 9 >

北傀歲出豫算의 項目別構成

단위 : 北傀貨 百萬원

區 分 年 度	總 計		人 民 社 会		國 家 機 關	軍 事 費 (%)
	總 額	增加率 (%)	經濟費 (%)	文化費 (%)	管理維持費 (%)	
1967	3,948.23	—	50.6	17.5	1.5	30.4
1968	4,812.89	21.9	48.9	17.2	1.5	32.4
1969	5,045.87	4.8	47.8	19.7	1.5	31.0
1970	6,002.69	19.0	50.0	17.0	1.5	31.5
1971	6,301.66	5.0	48.0	19.2	1.7	31.1
1972	7,388.61	17.3	57.3	23.9	1.8	17.0
1973	8,338.09	12.9	58.4	24.8	1.8	15.0
1974	9,672.19	16.0	57.7	24.4	1.8	16.1
1975	11,367.48	17.5	58.0	23.8	1.8	16.4
1976	12,325.50	8.4	58.5	23.7	1.1	16.7

자료 : 國土統一院, 北韓經濟統計集 1977

뒤이은 南北協商의 進展에 때를 맞춘 對内外宣傳을 위한 術策에  
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또한 1972年以後 人民經濟費  
가 相對的으로 急增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北韓經濟는 急成長은 커

년 도리어 成長이 鈍化되고 있는 것으로도 反証된다.

이런 點들을 勘案하여 여기서는 歲出構成比가 비교적 安定的이었던 67~71年의 5個年 平均을 基準으로 삼아 이것에 72年以後의 小幅的인 變動比率을 적용함으로써 1972~76年의 豫算構成比를 調整하였다.

<표 9>는 元來 北傀가 발표한 豫算 그대로 各項目의 構成比를 算出해 놓은 것이며 <表 10>은 그 構成比를 앞에서 言及한대로 調整한 結果이며 調整된 構成比에 의한 項目別 歲出額은 <表 11>에서 보는바와 같다.

<表 10> 北傀歲出項目構成比의 調整

단위 : %

	人民經濟費	社会文化費	國家檢閱 管理維持費	軍 事 費
1967~71年平均	49.1	18.1	1.5	31.3
1974年	49.0	18.0	1.5	31.5
1975年	49.0	17.5	1.5	32.0
1976年	49.3	17.1	1.3	32.3

< 表 11 >      北傀歲出項目別 豫算額 ( 調整值 )

단위 : 北傀貨 百萬원

	歲出總額	人民經濟費	社会文化 施策費	國家機關 管理維持費	軍 事 費
1974	9,672.19	4,739.37	1,741.00	145.08	3,046.74
1975	11,367.48	5,570.06	1,989.31	170.51	3,637.60
1976	12,325.50	6,076.47	2,107.66	160.23	3,981.14

나. 軍 事 費

北傀의 歲出에 나타난 「國防費」全額을 軍事費支出로 포착하였으나 앞에서 調整된 構成比에 의한 計數를 이용하였다. 「國防費」중에는 耐久性軍事裝備의 購入등 資本支出의 性格을 띤 部分도 있겠지만 區別할수 없으므로 一旦 모두 消費財購入으로 看做하여 當該年の 政府消費支出로 計算하였다.

다. 行 政 費

北傀의 歲出項目중에서 行政費에 해당하는 項目은 「國家機關管理維持費」이다. 이것 역시 調整된 構成比에 의한 支出額 全額

을 이項目的 政府消費支出로 計上하였다. 한가지 添言할 點은 1976 年の 決算結果 이項目支出의 比重이 例年の 1.8 %에서 1.1%로 갑자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急減의 理由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調整을 加하였다.

一般的으로 歳出總額에서 大幅的인 減縮이 없는 限 項目別支出의 絶對額에서 激減이 일어나는 일은 드물다. 北傀의 경우 歳出規模는 增加趨勢를 지속해 왔는데 이렇게 項目別支出에서 갑자기 크게 줄어든다는 것은 支出性向의 下方硬直性이나 北傀의 1人專制體制를 維持하기 위해 膨脹一路에 있는 統治機構에 비추어 보아 納得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6 年の 「國家機關管理維持費」를 当初의 1億3,千餘萬원, 즉 歳出總額의 1.3 %로 上向調整하였다.

#### 라. 社会·文化費

北傀歳出에서 보통 약 20 %의 構成比를 갖는 社会文化施策費에는 教育, 文化, 体育, 保健, 衛生 등 以外에 住宅建設費와 学校建設費도 포함된다. 住宅建設 및 学校建設은 固定資本形成이므로 이들費用은 政府의 固定投資支出等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社会文化施策費에는 「社会保障費」라는 費目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政府消費에 計上할 경우 民間消費와 二重計算이 되므로 이것도 政府의 消費支出에서는 除外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規模를 推定할 根拠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便法을 사용하였다.

< 표 12 >

「社会保障費」(移轉所得) 推定

	移轉所得額 (北傀貨百萬원)	「社会文化施策費」 에 대한 比率 (%)	「社会文化施策費」中政府 最終支出額 (北傀貨百萬 원)
1974	193.44	11.1	1,547.56
1975	227.35	11.4	1,761.96
1976	264.51	11.7	1,843.15

北傀의 歲入豫算을 보면 住民으로부터 받아들이는 税金은 全体 歲入額의 약 2%로 되어 있다. 이 2%의 税金이 全部 住民에게 도로 支出되는 것으로 假定하였다. 따라서 政府의 消費支出로 計上되는 이 社会·文化費에서 그만큼 差減하였다.

마. 政府消費支出推移

以上 北傀의 軍事費, 行政費, 社会·文化費를 集計한 政府消費支出은 < 표 13 >에서 보는바와 같다.

< 표 13 >

北傀의 政府消費支出

단위 : 北傀貨 百萬원

	軍 事 費	行 政 費	社会·文化費	合 計	前年比增加率(%)
1974	3,046.74 (64.3%)	145.08 (3.1%)	1,547.56 (32.6%)	4,739.38 (100.0%)	
1975	3,637.60 (65.3%)	170.51 (3.1%)	1,761.96 (31.6%)	5,570.07 (100.0%)	(17.5%)
1976	3,981.14 (66.5%)	160.23 (2.7%)	1,843.15 (30.8%)	5,984.52 (100.0%)	(7.4%)

여기서 보면 첫째 1975년의 政府消費支出은 前年에 비해 17.5%나 증가하였으나 76년에는 7.4%의 증가에 그쳤다. 이것은 歲出總額의 增加率과 거의 비슷한 推移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北傀의 軍事費는 漸增하고 있다. 1974년의 64.3%에서 76년의 66.5%로 그 構成比가 높아짐에 따라 行政費와 社会·文化費의 比重은 相對的으로 낮아지고 있다.

## 2. 總投資支出

우리의 經濟體制下에서는 일반적으로 殆半의 投資는 民間部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政府에 의한 公共投資의 比重은 一般的으로 낮다. 그러나 共產圈諸國의 事情은 다르다. 共產傀儡政權下의 北韓에서 私有財産制度가 廢止된 것은 이미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北韓에서의 民間部門의 投資는 여기서는 全無한 것으로 前提하였다.

一般的으로 個人部門에서의 投資라고하면 그殆半이 住宅建設이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는 個人의 住宅建設은 許容되지 않는다. 前記한 바와같이 北傀는 住宅建設費를 歲出預算上의 「社會文化施策費」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北韓住民들은 政府가 建設한 6~7坪規模의 좁은 아파트나 粗雜한 集團聯立住宅에서 居住하게 된다.

主로 都市에는 小型아파트, 農村에는 聯立住宅을 建設하여 住民生活의 集團化를 造成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住宅建設을 政府部門의 固定投資에 포함시키는 것이 當然한 일이나 住宅建設이 北傀歲出額에서 占하는 比重을 파악할수가 없는 까닭에 本接近에서는 政府消費支出에 그대로 남겨 두었다.

### 가. 固定資本形成

既述한바와 같이 北傀의 歲出項目인 「人民經濟費」中에는 모든 分野의 建設費가 들어 있는데 이것을 北傀에서는 「國家基本

建設費」로 總稱하고 있다. 이것은 政府의 資本支出이기 때문에 固定資本形式에 해당한다. 모든 産業部門의 工場施設을 비롯하여 社会文化施設에 이르는 建設費가 包括된다.

그런데 1971年以後 北傀는 「國家基本建設費」의 額數나 構成比를 發表하지 않고있다. 다만 前年比의 增加率을 倍數로 發表하고 있을 뿐이다. 前年에 比해 1971년에는 1.5倍, 72년에는 1.4倍, 73年과 75년에는 多같이 1.3倍로 增加하였다고 발표하면서 74年에 대해서는 아무런 言及도 없다.

그러나 北傀가 발표하는 이런 倍數에는 信憑性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一例를 들자면 1970年에 北傀는 「國家基本建設費」로 21億2千萬원이 支出되었다고 公表했다. 따라서 이 金額에 上記倍數를 適用하여 보면 71년에는 同建設費로 31億8千萬원이 支出된 셈이다. 그런데 이 金額은 「人民經濟費」總額 30億2千萬 원조차도 上廻하게 된다. 앞에서 밝힌 바와같이 「人民經濟費」중에는 「國家基本建設費」뿐만 아니라 「生産을 위한 經費」가 포함 되어 있으므로 納得할 수 없는 數值가 되어 버린다.

또한 「國家基本建設費」의 支出額이 發表되었던 1966~70年의 同支出額이 「人民經濟費」중에서 占하는 比重을 보면 <表1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4>

北傀「人民經濟費」의 構成

단위 : 北傀貨億원

	人民經濟費(A)	國家基本建設費 (B)	$\frac{B}{A}$ (%) (C)	經常支出 (A-B)
1966	24.3	8.7	35.8	15.6
1967	20.0	10.7	53.6	9.3
1968	23.5	15.3	65.0	8.2
1969	24.1	16.9	70.0	7.2
1970	30.0	21.2	70.6	8.8

資料 : 国土統一院, 北韓經濟統計表, 1977

즉 1966年の 35.8%에서 70년에는 急激한 上昇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比重의 急增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人民經濟費」중의 다른 한 支出費目인 經常費支出의 急激한 減少推移를 說明할 수가 없다. 投資의 規模가 늘어나는데 反對로 經常費支出이 줄어든다는 것은 常識的으로는 首肯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前記 倍數는 北傀가 되는대로 造作하여 내놓은 誇張된 數值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1971年以後의 政府固定投資支出을 推計하기 위해서는 1971~76年の 「國家基本建設費」의 比重에 關係 多少 恣意的인 假定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즉 同期間에 年平均으로 「國家基本建設費」가 「人民經濟費」중에서 占하는 比率을 北傀가 발표한 1966~70年 比率의 平均

59.0%를 취하여 代用하였다. 이런 便法을 뒷받침할 論理는 없다. 그러나 軍事費推計에서 본바와 같이 大体로 北傀가 發表한 計數중에서는 60年代後半에 관한 計數가 多少 歪曲한 程度가 낮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966~70年の 「人民經濟費」중에서 「國家基本建設費」가 占하는 比率의 平均値 59.0%를 1975~76年の 調整된 「人民經濟費」 總額에 적용하여 求한 北傀의 政府固定投資額은 <表15>로 나타냈다. 여기서 1974年の 投資額은 「人民經濟費」의 64%를 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64%라는 比率은 1966~70年の 平均値인 59%와 同期間의 最大値인 70%의 대략 中位値를 취한 것이다.

元來 74년에 대해서는 北傀는 그 倍數조차 發表하지 않고있다.

<表15> 北傀의 政府固定投資支出(推定結果)

단위: 北傀貨百萬元

年度	區分 人 民 經濟費(A)	固 定 投 資 支 出		增 加 率 (前年比)
		金 額 (B)	比率(B/A)	
1974	4,739.37	3,033.20	64.0%	
1975	5,570.06	3,286.33	59.0%	8.3%
1976	6,076.47	3,585.11	59.0%	9.1%

그런데 1974年은 北傀가 貿易収支에서 赤字가 大幅 増加한 해였다. 이런 赤字의 急増은 機械類가 大部分을 이루는 北傀의 輸入品 構成에 비추어 資本財의 輸入増大와 部分的으로 油類波動에 따른 國際商品價格의 昂騰에 基因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輸入된 資本財는 말할것도 없이 固定投資財로 이용되는 까닭에 74年의 固定投資率을 異例的으로 높게 推定할 수 있는 根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政府의 固定投資形式에는 이밖에도 이미 言及한바와 같이 「社會文化施策費」중에 들어있는 住宅 및 學校建設등을 包含시켜야 하나 이에 대한 支出額을 推定할 根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拋棄하고 말았다. 따라서 <표 15>에 나타난 政府固定投資를 一旦 北韓의 總固定資本形式으로 간주하지 않을수 없는 結果가 되고 말았다.

#### 나. 在庫變動

政府部問의 在庫投資에 관한 資料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 北傀는 近來에 戰爭準備를 위해 많은 軍需物資를 備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政府部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戰爭物資의 備蓄은 決算體制가 購入時点を 基準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軍事費등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政府決算에 있어서는 物資를 實際의 消費時点を 基準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購入時점에서 다른 決算費目에 들어가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經濟全體로 보면 歲入予算과 歲出予算의 差額, 즉 次年度 移越額에서 前年度로 부터의 移越額을 差減한 純差額만큼은 在庫變動으로 나타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論理를 아주 單純하게 展開하여 보자.

가령 一國이 100을 生産하여 國民이 그 全部인 100을 分配받아 그中에서 20을 税金으로 支出하고 80을 消費했다고 하자. 20의 稅收를 가진 政府가 그중에서 10만을 支出하고 나머지 10은 次年度로 移越했다고 하면, 10에 相當하는 生産物은 소비되지 않고 그 經濟의 어딘가에 在庫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方式으로 在庫變動을 파악한다면 적지 않은 異議가 提起될 수 있다. 그러나 資料가 全無한 狀況에서의 窮餘之策으로서 채택한 것인데 그 推計結果를 나타낸 것이 <表 16>이다. 勿論 이것이 北韓經濟 全體의 在庫變動을 包括하는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表 16> 在庫變動의 推定

단위 : 北傀貨百萬元

	予 算 収 入		純剩餘 (B - A) = 在庫變動
	前年度로부터의 移越(A)	次年度로의 移越(B)	
1974	221.95	443.06	221.11
1975	443.06	218.82	-224.24
1976	218.82	300.33	81.51

자료 : 国土統一院, 北韓經濟統計集, 1977

그런데北韓의民間部門에서이렇다할在庫變動을期待할수는 없는것으로判斷된다. 6.25動亂이 끝난以後 來來 極限的인配給統制下에서 “生存水準의生活”로延命해온北韓住民의家計部門에서在庫變動이 일어날餘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民間部門의 在庫變動은考慮하지 않았다.

### 3. 政府支出推移

政府消費支出과 政府投資支出을合計한 것이 <表 17>이다. 이 政府의 最終支出總額중에서 資本支出이 占하는 比重은 1974年에 40.6%, 75年에 35.4%, 76年에 38.0%이다.

<表 17> 北傀의 政府支出

단위 : 北傀貨百萬원

年度 支出項目	1974	1975		1976	
		金額	前年比(%)	金額	前年比(%)
消費支出	4,739.38	5,570.07	17.5	5,984.52	7.4
軍事費	3,046.74	3,637.60		3,981.14	
行政費	145.08	170.51		160.23	
社会·文化費	1,547.56	1,761.96		1,843.15	
固定投資支出	3,033.20	3,286.33	8.3	3,585.11	9.1
在庫投資	211.11	△224.24		81.51	
支出總計	7,983.69	8,632.16	3.4	9,651.14	11.8

總最終支出은 1975年과 76년에 前年比 각각 3.4%, 11.8%가 증가하였다. 75년에는 消費支出이 17.5%, 固定投資支出이 8.3% 각각 增加하였으나 在庫投資에서 큰 減少를 示顯함으로써 전체로는 3.4%의 증가에 그쳤다. 76년에는 消費支出보다도 固定投資支出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 4. 民間消費支出

民間部門의 支出도 元來 投資支出과 消費支出로 이루어지는 것이 一般的이나 北韓에 있어서는 北傀預算에서 밝혀진 바와같이 投資支出은 모두 政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既述한 바와같이 住宅建設까지도 政府의 預算統制下에 놓여 있다. 따라서 民間部門의 支出은 消費支出에 限定된다.

民間消費支出의 主要項目은 元來 食費, 被服費, 住居費, 光熱費 등의 基本的支出과 教育費, 文化費, 保健衛生費, 其他雜費로 구성된다. 그런데 北韓에 있어서는 住居費, 教育費, 文化費, 保健衛生費 등은 北傀預算중의 한項目인 「社會文化施策費」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消費項目들에 대한 支出이 全적으로 政府歲出로 充당되는 것은 아니다.

具體的인 例로는 住宅修理, 學用品, 理髮, 沐浴, 映面觀覽 등에 대한 支出은 住民 自身들이 負擔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民間消費支出을 仔細한 支出費目的 集計로서 推計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 具體的인 最近資料를 이용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政府消費支出과의 區別이 애매하기 때문에 二重計算되거나 漏落될 餘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선 食費만을 推計하여 이것에 英鎊係數와 人口數를 적용하여 民間部門의 消費支出總額을 算定하는 方式을 採하였다. 英鎊係數는 1960年代初까지의 生計費構成에 관한 資料를 基礎로 삼아 推定하였다.

北韓住民들의 食生活은 單調하고 貧弱하기 짝이 없다. 勿論 高位職級官僚들은 例外이다. 그들은 一般住民들과는 달리 相當한 特惠配給을 받으면서 特權生活을 享有하고 있다.

「朝鮮中央年鑑」에 게재된 糧穀配給基準을 보면 農民은 1日 400g, 그 扶養家族 300~100g, 勞動者는 1日 800g, 그 扶養家族 400g, 人民校生 및 中學生 500g, 事務費 및 大學生 700g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基準은 한낱 名目的인 것에 불과한것 같다. 北傀는 凶作 등으로 因해 食糧事情이 逼迫해질때 마다 適當한 口實을 붙여 糧穀配給量을 줄여오고 있다.

北韓住民들의 食糧難은 糧穀의 暗去來價格에 如實히 反映되고 있다. 1가마당 配給價格의 170倍, 收買價格의 6倍를 上廻하고 있는 實情이다. 地域과 時期에 따라 큰 差異가 있으나 어쨌든 엄청나게 비싼 것은 分明하다. 이런點에 비추어 北韓의 一般住民들은 겨우 生存水準의 食生活을 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北韓住民들의 食生活에 관해 UN統計에 나와있는 計數들을 抽出해서 推定해 보면 <表18>과 같다.

<表 18>

1人当 1日食料品消費支出

	日消費量 (g)	熱 量 (칼로리)	年間消費 (kg)	單 位 (北僦원)	金 額 (北僦원)
米 穀	150	1,622	55	0.60	33.00
雜 穀	319	1,622	116	0.40	46.40
豆 類	75	255	27	0.40	10.80
薯 類	211	161	77	0.20	15.40
菜 蔬 類	272	68	99	0.10	9.90
肉 類	21	57	7.3	7.50	57.75
生 鮮	20	24	7.3	0.45	4.19
鷄 卵	8	12	2.9	0.50	1.45
油 類	1	10	0.4	4.50	1.80
合 計		2,209			169.88

자료 : 国土統一院, 北韓統計集, 1977

特徴적인 것은 勞動力을 確保하기 위한 措置로 營養은 不足하지  
 만 칼로리面에서는 이를 充足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1日  
 칼로리 攝取量에서 男子 2,300~2,900 칼로리, 女子 1,800~2,200  
 칼로리이며 兒童들은 2,500~3,600 칼로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

져 있다. 近年에는 勞動力不足을 解決하기 위한 一環策으로 婦女  
 子들을 動員하기 위해 所謂 “밥공장” “된장, 간장공장” 制生産을  
 꾀하고 있다.

表에 나타난 바와같이 攝取熱量을 金額으로 評價하는데 있어서는  
 北傀의 糧穀收買價格으로 計算하였다. 價格은 国土統一院의 「北韓  
 經濟統計集」( 1977 )의 計數를 最近까지 延長시켜 사용하였다.

이리하여 推算된 1人당 年間 食費支出은 169.88 北傀원으로 計算  
 되었다.

다음으로 恩賜係數의 推定에 關係하여 北韓住民의 生計費構成을  
 보면 <表 19> 와 같다.

<表 19> 北韓의 生計費構成

단위 : %

	協同農場員		事務員 및 勞働者	
	1960	1962	1960	1963
食料品費	67.2	58.9	47.3	45.5
被服費	22.4	23.8	30.9	29.6
住居費	1.9	2.3	4.3	4.9
燃料·照明費	1.2	6.9	2.3	2.8
文化衛生費	7.3	8.1	18.8	17.2
合計	100	100	100	100

자료 : 朝鮮中央年鑑, 1963

農民의 英鎊係數가 勞働者나 事務員의 係數보다 높다. 農民의 英鎊係數는 60年의 67.2%에서 62년에는 58.9%로 크게 低下하고 있으나 勞働者 및 事務員의 경우는 60年의 47.3%에서 63年의 45.5%로 약간 下落하고 있다. 이처럼 食費의 比重이 減少한 것은 消費生活의 高度化에서 왔다고는 볼 수 없다. 表에 나타난 바와같이 文化衛生費의 比重이 크게 증대한 것이 아니라 燃料·照明費나 住居費의 構成比가 증대하고 있다.

北韓에 있어서는 穀物價格에 비해 被服價格 등은 터무니 없이 비싸다. 英鎊係數의 急激한 變動은 이런 相對價格의 움직임에 주로 基因한 것으로 보인다.

北韓住民의 食費를 加重 平均으로 求하자면 적어도 農民이나 勞働者가 總人口중에서 占하는 比率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兩者間에 英鎊係數에서 相當한 差異를 示顯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6年末現在 北韓의 農村人口는 總人口의 52.5%였으나 그後 漸減하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表 19>에 나타난 바와같이 1960~63年의 勞働者 및 事務員의 英鎊係數는 年平均 0.6% 포인트씩 떨어지고 있으며 1959~62年의 協同農場員의 英鎊係數는 2.5% 포인트씩 下落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1956 ~ 60 年の 趨勢를 보면 前者는 2.1% 포인트  
後者는 3.3% 포인트씩 줄어들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北韓住民의 恩賜係數가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그 下落率은 漸次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점을 勘案하여 1962 ~ 74 年の 年平均 下落率을 0.6% 포인  
트로 보면 1974 年の 恩賜係數는 43.8%가 된다. 1974 ~ 76 年  
은 年平均 0.1% 포인트씩 낮아지는 것으로 假定하였다.

北韓의 1人當 消費支出額은 1人當 平均 食費를 위의 恩賜係數  
로 나눠 줌으로써 求하였다.

다음으로 1人當 消費支出額에 人口數를 곱해주면 民間消費支出  
總額이 算出된다. 北韓의 年平均 人口 增加率은 1965 ~ 73 年에  
2.7%로 推定되고 있는데 1974 ~ 76 年은 2.6%로 假定하였다.  
北韓의 兵力을 50 萬名으로 어림잡고 總人口數에서 差減한 後 消  
費支出을 推定하였다.

軍人들의 消費는 軍事費에 計上되어 政府消費支出에 이미 包含되  
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假定위에서 推定한 北韓의 民間消費支出額은 <表 20 >  
에서 보는 바와 같다.

< 表 20 >

北韓의 民間消費支出 (推定)

	總人口 (千人)	民間人數 (千人)	1人當消費 支出額 (北傀元)	總民間消費 支出額 (北傀百萬元)
1974	15,437	14,937	387.9 (128.02)	5,793.37
1975	15,838	15,338	388.7 (128.28)	5,961.88
1976	16,250	15,750	389.6 (128.58)	6,136.20

주: 괄호안의 數値는 北傀貨 3.03 원로 1弗로 換算한 弗貨表示  
額임.

자료: 北韓經濟統計集, (1977)

民間消費支出額은 1975 年에 前年比 2.9%, 76 年에 5.9%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對外去來

北傀의 對外去來에 關해서는 交易相對國의 統計를 利用하여 파악할수만 있다면 信憑性은 높을 것이다.

北傀의 對四方諸國과의 交易統計는 비교적 쉽게 利用할수 있으나 對共產圈內의 交易統計는 入手하기가 어렵다. 貿易에 關한 資料는 그런대로 利用할수 있는데 反해 貿易外, 즉 서어비스의 輸出入에 關한 資料는 全無한 形편이다.

貿易去來에 關한 資料는 75年까지밖에 나와있지 않다.

따라서 76年은 近年의 趨勢를 延長하는 方法으로 暫定値를 求하였는데 특히 北傀는 最近의 外貨事情逼迫으로 因해 76年에는 貿易赤字를 크게 減少시켰으리라는 點을 勘察하였다.

北韓의 輸出推移를 보면 1970~75年에 年平均 8.4%의 伸張率을 示顯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平均伸張率이며 最近들어 그伸張勢가 顯著히 鈍化하고 있다.

75年에는 不過 3.6%의 增加에 그쳤다. 이를 打開하기 위하여 北韓에서는 요즘 大大的인 所謂 “外貨벌이” 運動을 展開하고 있는 것으로 伝해지고 있다. 이런 點들을 考慮하여 76年の 輸出은 前年比 6.0%, 즉 前記한 8.4%와 3.6%의 중간정도 增加한 것으로 想定하였다.

한편 北韓의 輸入은 來來 增加勢를 보여 오다가 75年에는 近 20%의 減少를 나타내고 있다. 極甚한 外貨不足으로 因한 이런 趨勢는 76年에도 계속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經濟規模의

증대에 따라 所要되는 生産財의 輸入需要때문에 絶對額에 있어

< 표 21 >

北傀의 貿易收支推移

단위 : 百萬弗

區 分 年 度	輸 出	輸 入	貿 易 收 支
1970	366.0	439.0	-73.0
1971	405.5	503.5	-98.0
1972	449.3	577.5	-128.2
1973	382.2	702.1	-319.9
1974	503.5	1,150.5	-646.5
1975	521.7	931.3	-409.6
1976(推定)	553.0	930.0	-377.0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日本. 貿易振興會統計

서는 前年水準을 維持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北傀의 對外貿易은 “自力更生,” “平等互惠”를 原則으로 내세고 있다. 따라서 「基本的인 것과 大量으로 必要한 것은 自力으로 生産하고 若干밖에 必要로 하지 않는 것과 自國에서 生産되지 않는 것은 有無相通한다」는 原則에 基礎하여 外國과 交易한다.

는 方針을 취하고 있다.

交易對象國은 60年代까지는 共產圈에 거의 限定하였으나 그後 新生獨立國을 重視하며 西方諸國과도 交易함으로써 市場政策을 轉換하였다. 1972年以後 日本, 프랑스, 西獨, 美國 등의 西方工業國과의 貿易을 擴大한 結果 北傀의 貿易市場 構成은 71年의 共產圈 80%, 非共產圈 20%에 74년에는 共產圈 40%, 非共產圈 60으로 逆轉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市場轉換은 交易 그自体보다도 北傀가 「6個年計劃」의 諸般事業에 所要되는 資金調達을 위한 方便에서 나온 것이 틀림이 없다. 日本을 비롯한 西方諸國으로 부터 短期貿易信用을 導入하여 長期投資에 돌림으로써 債務履行不能이란 事態를 惹起시키고 있다. 對日交易에 있어서는 72년에 55百萬弗, 73년에 23百萬弗, 그後에도 이水準을 下廻하지 않는 入超現象이 계속됨으로써 「6個年計劃」期間에 적어도 2億弗의 貿易信用을 이용해야 그赤字를 補填할수 있는 形편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北傀의 貿易外支給은 短期信用導入에 따른 利子支給, 海外宣傳費 등이 主軸을 이루고 있으며 貿易外收入은 觀光收入과 麻藥密輸出등 不法活動에 의한 海外 要素所得의 取得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관한 資料가 전혀 없으므로 貿易外收支는 一旦 均衡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判斷하였다.

< 표 22 >

北韓의 經常 計定上의 剩餘<sup>1)</sup>

단위 : 北傀百萬元

年 度	區 分	輸 出	輸 入	剩 余
1974		1,525.61	3,486.02	-1,958.90
1975		1,580.75	2,821.84	-1,241.09
1976		1,675.59	2,817.90	-1,142.31

주 : 1) 輸出入額을 北傀원으로 換算하는데 適用한 換率은 1 弗對 3.03 원임

따라서 北韓의 經常計定上의 剩餘는 < 표 21 >의 北傀의 貿易收支만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貿易收支가 逆調이기 때문에 負의 剩餘가 된다. 輸出入額을 北傀원으로 換算하자면 北傀원에 대한 評價問題가 提起된다.

北傀는 復數換率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價格體系가 人爲적으로 歪曲되고 있는 狀況에서 眞正하게 實勢를 反映한 換算率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

本研究에 있어서는 北傀의 貿易收支가 大幅赤字를 示顯하고 있는 點 등을 勘案하여 實勢換率을 從來의 諸分析에서 사용해 오던 一種의 패리티率보다 높게 잡았다.

1976年版 Europa 年鑑에는 基本率(basic rate)은 1對 1, 觀光率(tourist rate)은 弗當 2.05北傀원, 貿易率

(trade rate)은 弗当 3.048 원으로 나와있다.

한편 日本貿易振興会 (JETRO) 刊行 Asian Yearbook (76年版)

「朝民人共」篇에는 파운드(鎊)当 5.55 北傀원으로 나와 있다.

76年の年間平均時勢가 5 当 1.83 弗이었음에 비추어 弗当으로는

3.03 원이라는 計算이 나온다. 本接近에 있어서는 便宜上 이率을

分析対象期間 (1974~76年)에 一率적으로 適用하였다.

6. GNP 推計結果

以上 部門別支出을 綜合하여 GNP 를 推計하면 < 표 23 > 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여기서 보면 1976 年の 北韓의 國民總生産額은 14,611.6 百萬 北傀원으로 推計되었다. 이를 費貨로 評價하면 4,822.3 百萬弗에 相當한다. 74 年은 3,960.9 百萬弗, 75 年은 4,424.7 百萬弗로서 75 年과 76 年の 經濟成長率은 각각 11.7%.

< 표 23 >

北韓의 GNP 에 대한 支出

단위 : 北傀百萬원

	1974	1975	1976
民間消費支出	5,793.37	5,961.88	6,136.20
政府消費支出	4,739.38	5,570.07	5,984.52
軍事費	3,046.74	3,637.60	3,981.14
行政費	145.08	170.51	160.23
社會·文化費	1,547.56	1,761.96	1,843.15
固定資本形成	3,033.20	3,286.33	3,585.11
在庫變動	221.11	-224.24	81.51
輸出	1,525.61	1,580.75	1,675.59
輸入(-)	3,486.02	2,821.84	2,817.90
國民總生産	12,001.55	13,406.97	14,611.55

주 :  
자료 :

9.0%로 計算되었다. 75年の 成長率이 이같이 높은 것은 「6個年計劃」(1971~76年)을 1年앞당겨 達成하기 위해 死力을 다한 目標年이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높은 成長에 주로 크게 寄与한 것은 投資支出보다는 軍事費와 行政費 등 政府消費支出의 激增이었다.

1人當 GNP는 76년에 296.76弗, 74年과 75年은 각각 256.59弗, 279.37弗이었다. 한편 1人當 民間消費는 76년에 128.58弗로 1人當 GNP에 대해 0.43의 매우 낮은 率을 示顯하고 있다.

以上の 數值들은 北傀貨를 弗當 2.37원으로 過大評價하는 경우에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 즉 1976年の GNP總額은 616.5億弗, 1人當 所得도 379弗로 膨脹하게 된다. 이렇게 過大評價에 의한 數值들은 從來의 推算値와 큰 隔差를 보이지 않고 있다.

北韓의 GNP推計結果를 檢証할수 있는 間接的인 分析指標로서 限界 固定資本係數를 算出하여 <표 24>에 提示하였다. 75년에 2.3, 76년에 3.0으로서 共產圈內 불가리아의 1956~65年平均과 近似하다. 北韓은 軍需工業을 主軸으로한 重工業爲主의 産業構造를 갖고 있는데다가 勞動力不足으로 因해 資本係數가 이보다도 훨씬 높을 것으로 흔히 想像하기가 쉽다. 그러나 機械 및 施設의 老朽化와 婦女子의 勞力動員, 勞動時間延長 등에 비추어 볼때 資本/勞動의 比率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上記 限界資本係數는 納得할만한 것으로 判斷된다.

< 표 24 >

北韓의 GNP 分析指標

단위 :

	1974	1975	1976
GNP 總額 (百萬弗)	3,960.91 (5,063.94)	4,424.74 (5,656.95)	4,822.29 (6,165.21)
GNP 成長率 (%)	-	11.7	9.0
1人當 GNP (弗)	256.59 (328.02)	279.37 (357.18)	296.76 (379.40)
固定投資率 (%)	25.3	24.5	24.5
限界固定資本係數 (%)	-	2.34	2.98

주 : 괄호안의 數値는 弗當 2.37 北僞元을 適用한 것임.

그밖의 數値는 弗當 3.03 원으로 換算하였음.

자료 :

다음 投資財源의 調達面에서 分析해 보면 1976 年에 海外貯蓄率은 31.1%, 그 나머지는 政府에 의한 強制貯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國民貯蓄率은 17.2%로 나타났는데 그全部가 政府貯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北韓의 낮은 所得水準에 비추어 매우 높은 貯蓄率임에는 틀림 없으나 北僞의 專制體制로 미루어 본다면 強行하고도 남음이 있는 率로 보여 진다.

쫓컨대 이 推計는 여러가지 問題點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적어도 推定結果에 나타난 計數에 관한 限 納得할수 없거나 크게 不合理한 推計結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즉 分析指標로 檢証해 볼때에 큰 無理는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 V. 結 論

### 1. 推計上の 問題点

信憑할만한 統計資料가 거의 없는 与件에서 北韓의 GNP를 제대로 推計하려는 試圖는 애당초 無理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자칫하면 하나의 '어림짐작演習' (guessing game)에 그칠 公算이 크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北韓의 GNP를 把握하려는 試圖마저 拋棄할수는 없다. 우리의 立場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課題라고 볼수도 있다. 南北韓의 經濟力을 比較하자면 現在로서는 GNP보다 더 나은 指標가 없기 때문이다.

本推計에 있어서는 주로 北傀의 豫決算資料를 이용하여 支出面에서 接近함으로써 從來의 接近들이 갖는 基本的인 欠陷들을 止揚하도록 努力하였다.

推計過程에서 二重計算의 餘地가 없었으며 所謂 「非生産的」서어 비스部門의 漏落도 일어날 수 없었다.

주로 利用한 豫決算資料는 어느정도 그 妥當性을 客觀的으로 檢討할 수 있는 까닭에 北傀發表計數를 그대로 받아 들이지 않고 調整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北傀가 發表하는 造作된 断片的資料에 依存하여 試圖한 從來의 推定結果와는 無關하게 一元的으로 接近한 推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細部の 推計過程에 들어가서는 어느정도 恣意的인 假定없

이는 더 이상 推計作業을 進陟시킬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GNP推計에서 그것을 評價하는 尺度의 구실을 하고 있는 物價에 대해서는 전혀 檢討할 수가 없었다. 北韓에 있어서도 物價는 分明히 騰貴하고 있다는 断片的証拠는 나타나고 있으나 人爲的인 會計價格이 支配하는 北韓의 物價를 体系있게 把握할 수 있는 資料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推計結果에 나타난 GNP는 經常價格으로 評價한 것이지만 不變價格에 의한 實質GNP를 이것과 區別하지 못하였다.

推計過程에서 北傀의 豫決算總額만은 그대로 받아 들였는데 이것부터도 問題가 있지만 별도리가 없었다. 北傀豫算의 「社会文化施策費」項目에 包含돼 있는 住宅 및 學校建設은 政府의 固定資本形成으로 推計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支出額을 推算할 根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른 社会·文化費와 함께 政府消費에 그대로 包含시키고 말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GNP規模의 推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政府固定投資는 그만큼 작게, 政府消費는 그만큼 크게 推計되는 結果를 초래했다.

한편 豫決算資料를 完全히 떠나서 推定한 民間消費支出에 있어서도 問題點은 있다. 多少 木은 制限된 情報資料를 이용하여 算出한 1人当食費와 恩賜係數는 誤差가 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人当食費와 恩賜指數만 가지고 1人当消費支出을 推定한 自体에 無理가 있는 것도 否認할 수가 없다.

## 2. 南北韓 GNP 比較

이렇게 支出面의 接近을 통한 北韓의 GNP推計는 從來의 接近들이 갖는 脆弱點을 払拭한 것은 確實하나 現在로선 거의 解決할 수 없는 問題點도 지니고 있다.

<表 25 > 南北韓의 GNP 比較

		1974	1975	1976
GNP (億弗)	韓國 (K)	166.80	187.60	250.90
	北韓 (N) <sup>1)</sup>	39.61	44.25	48.22
	N/K (%)	23.7	23.6	19.2
GNP 成長率 (%)	韓國	8.7	8.3	15.5
	北韓 <sup>1)</sup>	-	11.7	9.0
1人當 GNP (弗)	韓國 (K)	481	532	700
	北韓 (N) <sup>1)</sup>	257	279	297
	N/K (%)	53.4	52.4	42.4

註： 1) 北傀貨를 弗當 3.03 원으로 評價한 計數임.

以上の推計結果를 가지고 南北韓의 GNP를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76年の北韓GNP는 48億弗로서 우리나라GNP.251億弗의 19%, 1人当GNP는 297弗로서 우리의 700弗의 42%에 達하는水準이다. 1974年の北韓GNP는 40億弗, 1人当GNP는 257弗로서 우리나라의 24%, 53%에 각각 해당하는水準이었다. 그中間年인 1975년에는 GNP에서는 前年과 差なく 우리의 24%, 1人当GNP에서는 52%의水準으로 推計되었다.

따라서 推計結果를 가지고 본다면 昨年에 北韓의 GNP는 우리나라의 5分の 1정도에 不過하며 1人当所得은 우리의 절반정도에 도 못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게다가 3年間の 趨勢는 時間이 갈수록 GNP規模에 있어서나 1人当所得水準에 있어서 南北間의 隔差가 더 크게 벌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經濟成長率에 있어서는 75년에 北韓이 11.7%로 우리의 8.3%를 上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76년에는 우리의 15.5%를 훨씬 下廻하는 9.0%로 推算되었다.

이러한 GNP對比를 통하여 우리는 南北間의 經濟力, 나아가서 国力의 隔差를 実感할 수 있다. 그러나 1人当所得에 있어서는 그것이 곧 南北韓住民의 生活水準을 나타내는 指標는 될 수 없다는 点에 留意해야 한다. 北韓의 1人当所得의 增加는 그곳 住民들의 生活水準의 向上이나 福祉의 增進과는 아무 相關도 없다.

軍備增強에 拍車를 加하고 있는 北韓에 있어서는 所得의 大部分

은 軍事費支出에 들려진다. 年間 GNP의 30% 以上에 達하는 軍事力增強을 위한 財源을 住民들의 強制蓄積으로 充當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南北韓의 1人當 生活水準이나 福祉를 서로 比較하자면 우선 北韓住民의 軍事費負擔을 1人當GNP에서 差減해야 할 것이다. 이런 觀點에 선다면 1人當GNP보다는 1人當GNW를 比較하는 것이 合理的인 것이다. GNW란 '國民總福祉'의 略稱인데 現在로는 推計上の 困難 때문에 實用段階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指標이다.

元來 GNP는 그 自体가 目的이 아니며 國民의 福祉向上을 위한 手段에 不過하다. 그런데 手段이어야 할 GNP成長이 마치 目的인양 追求되는 수가 많다. 兩者가 반드시 比例的으로 成長하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1人專制下의 北韓體制에서 兩者間의 比例的成長은 想像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解放後 30餘年間 北韓의 1人當GNP는 增加하여 온 것은 틀림없으나 住民들의 生活에서는 별 다른 向上의 機微가 보이지 않으며 生存水準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現實이 이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住民들의 生活水準 또는 福祉向上이란 面에서 南北韓을 比較하자면 GNP가 唯一한 指標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總體的인 經濟力, 나아가서 国力을 比較하는데 있어서는 現在로서는 GNP에 代替할만한 더 좋은 指標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